

▲ 최연균 현장소장

안전을 최고의 덕목으로 이룩하고 있는 무재해 현장

— 포스코건설 광양제철소내 발전소 현장 —

산과 들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가지각색의 봄꽃들은 저마다 화려함을 뒤로하고 여리고 연한 연두빛 잎새의 싱그러움으로 우리 가슴에 다가올 때, 안전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 한 단계 Level Up된 안전으로 우리 산업사회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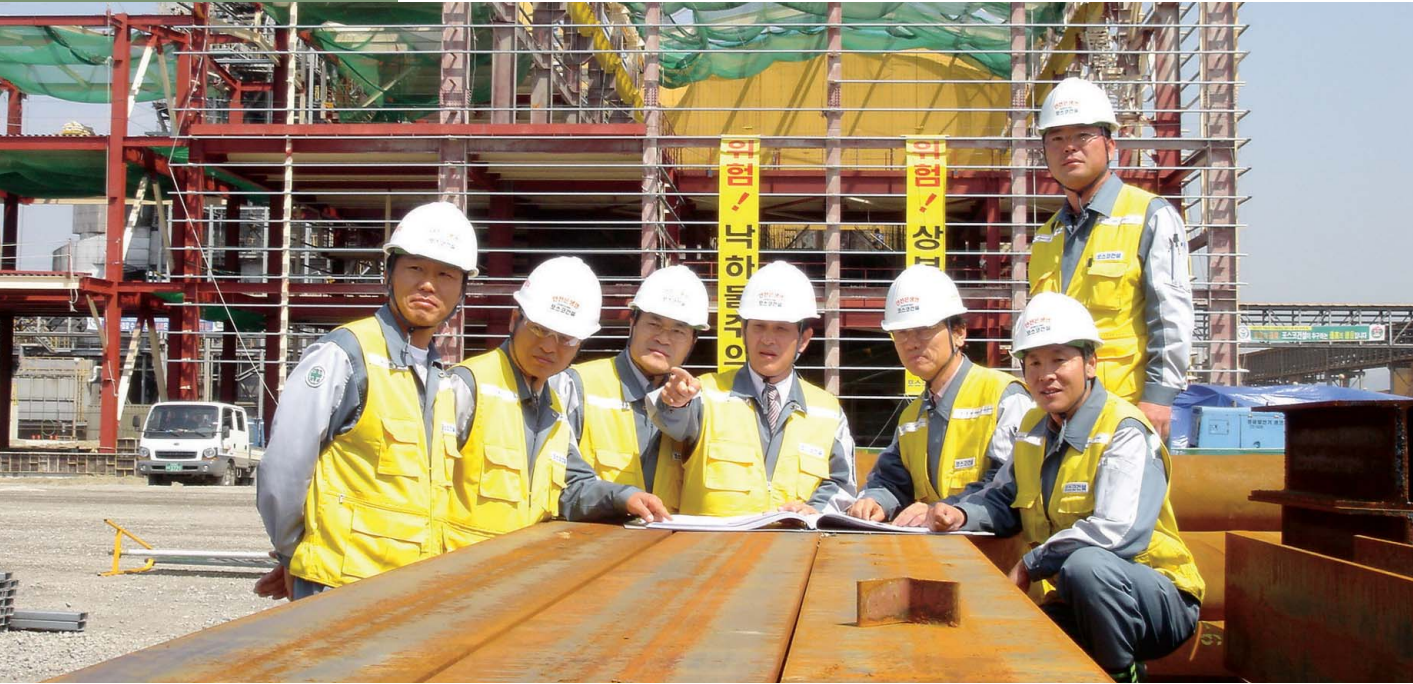
바로 포스코건설이다. 이러한 바람은 광양제철소내의 발전소 신축현장에서부터 시작되듯 현장 앞머리부터 “안전과 품질, 포스코건설이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입니다.”라는 카피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광양 9호발전 신축공사현장을 비롯해 8개 현장을 시공·관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현장소장 최연균)은 오늘까지 무재해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2개 현장을 무재해로 준공하였고, 오는 7월이면 또 다른 무재해 현장이 탄생한다.

건설안전의 기본 한단계 올라갈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서는 안전, 품질, 시공을 절대 기대하기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재래형 재해도 기본을 무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의 시작은 안전모 착용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모 쓰는 습관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 예전 같으면 안전모 하나 씌우기 위해 인상을 써야했고, 감정까지 상해야했던 지난날과는 사뭇 다르다. 그만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보호구 착용에 있어 인식이 모자르다. 이 시점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수준도 한단계 Level Up되어야 한다고 최연균 소장은 말한다.



그래서 이 곳 광양제철소내 모든 발전소 현장 근로자들은 각반 착용에 있어 적극적이다. 바지 끝단이 철근 등 기타 자재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거나 아차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목이 긴 부추형 안전화와 각반 착용으로 안전의 기본을 한단계 상승시키고 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반을 착용하지 않는 현장 근로자나 협력업체는 즉시 현장에서 퇴출 조치한다.

안전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현장에서는 사고 유발자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최연균 소장은 기본 준수를 엄중히 관리하고, “안전과 품질은 절대로 양보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되새긴다.

안전관리의 주체가 바뀌어야 할 때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과거 발주자가 중심이었던 것이 지금은 원청사 중심이다. 이렇듯 원청사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오늘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협력회사에 있다. 이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환경적으로 협력회사가 주체가 되는 협력회사 중심의 안전관리가 전개되어야 한다.

원청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강압적으로 주문하는 지시 일변도에서 벗어나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한발 앞서 실천함으로써 변화를 꾀한다면 협력업체 중심의 자율안전 시대는 곧 올 것으로 믿고, 이 곳 광양제철소내 모든 발전소 현장에서는 이를 실천하고 있다.

전 현장 무재해에는 이유가 있다.

광양제철소내 발전소 현장은 중량물과 장작물이 많고, 기계, 전기, 프랜트사업부

분인 장치산업 위주의 현장으로 고소작업과 지하 굴착이 많아 위험이 산재하고 있다.

그 중 당현장은 기존 발전설비와 연결되는 작업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COLOR SHEET TIGHT GRAME 용접작업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공정에서도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

고소작업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명줄은 일반 PP ROPE(14mm)를 사용하여도 되나 4ton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WIRE ROPE를 이용하여 이음매없이 작업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2개 지급하여 건너가는 부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하강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를 대비해 개별로 코부라 안전장치를 착용케하여 수평 및 수직 이동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높이 1m 이상되는 부분에는 핸드레일 설치와 가설계단이 아닌 스틸계단과 모든 개구부에 견고한 핸드레일 설치는 추락재해 위험이 가장 많은 현장에서 관련사고 없이 무재해 준공을 향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철저함은 토목공사에서도 볼 수 있다.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지장물(가스관, 고압 CABLE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에 누락되었지만 지질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는 등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는 포스코건설 발전소내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전현장 무재해 준공을 위해

포스코건설 광양제철소내 8개 현장은 오늘도 전현장 무재해 준공을 향해 모두가 하나가 된다. 오늘 방문한 낮 1시에도 어김 없이 전근로자가 어느 누구의 통제 없이 교육장 앞에 모여 TBM을 갖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가족이 아빠에게 보내는 명상 편지의 잔잔함은 현장 곳곳에 있던 잠재위험을 한꺼번에 몰아치운다.

이 밖에도 일일 안전활동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루 일과속의 안전이 몸에 스며들게 하고, 현장 한편에 설치된 간이 안전체험 교육장에서는 피부에 닿는 살아있는 안전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듯 하나가 되어 무재해를 향하는 포스코건설 가족들은 오늘도 안전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현장으로 나선다. 

〈최종덕 기자〉

